

## ▶ 가족·아동

## 가족의 구조적 특성과 관계적 특성에 따른 새터민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생활만족도

The Family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ir Social-Cultural Adjustment and Life Satisfaction

이 순 영·진 미 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남한으로 들어오는 탈북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주목되는 현상 중 한 가지는 가족이 동반 입국하거나 연계 입국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가족단위의 탈북이 늘어나면서 이것이 새터민의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선행연구들은 단독으로 입국한 새터민보다 가족이 일부라도 함께 온 새터민들의 적응이 더 빠르고 유연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다. 다른 한편, 연령이나 성별에 따른 적응의 개인차, 역할전환에 따른 권력구조의 변화, 성역할 규범의 변화 및 가족문화의 변화 등 다양한 갈등의 싹과 문제의 가능성이 새터민가족 내에 잠재되어 있으며 이는 개인과 가족의 적응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의 어떤 특성들이 새터민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생활만족도에 관련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2000년 이후 남한에 입국한 195명의 새터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가족의 구조적 특성과 관계적 특성이 새터민의 사회적 활동제약, 개인적 차별, 정서적 문제, 사회적 소외 및 전반적 생활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자료의 분석결과, 가족의 구조적 특성 자체는 새터민의 적응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동반탈북 여부 보다는 가족과 현재 함께 살고 있는지 여부, 특히 미성년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지 여부가 새터민의 사회적 활동 제약 문제를 완화시키는 것 외에는 유의한 영향력이 발견되지 않았다. 가족의 관계적 특성으로 살펴본 응집성과 적응성은 새터민의 적응과 생활만족도에 부분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응집성은 사회적 활동제약 문제와 부적의 관계가, 사회적 소외와는 정적인 관계가, 가족의 적응성은 생활만족도와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의 관계적 특성이 새터민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